



- PECC 및 KOPEC 개요 -

□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(PECC: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)

- PECC는 1980년 11개국 정부, 학계,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한 국제민간경제협력체임.
- 현재 23개 회원국: 한국, 미국, 일본, 중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태국, 브루나이, 홍콩, 대만, 베트남, 칠레, 멕시코, 페루, 에콰도르, 콜롬비아, 태평양도서국, 몽고
- PECC 주요 활동
 - 1989년 APEC 출범에 기여한 결과 현재까지 APEC의 공식 옵서버로 참석
 -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협력과 협동을 위해 정부, 학계, 업계의 삼자참여를 원칙으로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 증진 및 무역·투자 자유화를 통한 통합(market-driven integration)추진
 - APEC 각료회의에서 PECC 선언(PECC Statement)을 발표하여 주요 경제 사안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제시
 - 소규모 수시 과제 추진 체제로 진행되며 지역현황(State of the Region), 무역, 금융, 노동, 교육 등 당면 주요 주제별로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연구 활동 진행
- 금년도 PECC 총회는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(PECC)와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(CANCPPEC)가 공동으로 주최

□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(KOPEC: Korea National Committee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)

- KOPEC(회장: 채욱)은 PECC의 한국위원회로서 1981년 설립되었으며, 현재는

KIEP에 KOPEC 사무국이 설치되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. 태평양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국제적 연구 및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기여를 촉진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의 이익과 역할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.

○ KOPEC 주요 활동

- 태평양지역 내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추진 움직임과 그에 관한 국제적 연구 및 논의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한국의 참여와 기여 추진
- PECC 및 그 산하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고, 한국의 입장에서 태평양지역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의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그 결과를 국내적으로 공론화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전파
- 국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홍보 및 의제를 개발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
 - :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정책 건의를 주도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(비즈니스, 학계 등)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